

미국 USAID의 과테말라 원조동향

1. 대 중미 원조현황

가. 주요원조 방향

- USAID는 엘살바돌,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와 양자 차원에서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미 총본부는 지난 10년간 과테말라에 소재하였으나 '04. 7.1자로 엘살바돌로 이전
 - 코스타리카와 벨리즈는 사업규모가 적어, 현지사무소 미설치
- 중미지역에 대한 USAID의 지속발전 지원분야는 인적자원 및 천연자원 개발에 집중
 - 중미인구 (37백만 명/인구증가율 2.6%)의 약 2/3가 최빈층으로 평가되고, 그중 50%가 벽촌에 거주
- 최근 10년간 USAID는 내전으로 피해를 입은 중미지역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문민정부 설립 및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1996년 과테말라, 엘살바돌, 니카라과 내전을 종식하고, 민주선거에 의한 민주정부 수립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유도
 - USAID는 평화협정 및 민간정부 자유선거 정착지원, 행정부 기관능력 강화, 사법부 개혁을 지원
- 2002년부터 부시정부는 미국 민간자본 및 국제금융기관과 합동으로 중미 국가들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개발을 지원키로 약속 (향후 CAFTA와 연계)
 - 신규 투자업체 중미유치 및 지역 무역능력 강화에 초점

나. 국별 지원동향

(1) 과테말라

우선지원 분야는 평화협정 이행이며, 이외에 취약한 행정부 능력강화, 사법부 개혁, 인권보호, 벽지 교육 및 보건 강화, 환경보전, 허리케인 MITCH 피해복구 (2002년도 사업종료, 총사업비 28백만불)

(2) 엘살바돌

평화협정 준수, 정부 투명성 제고, 형사사법 강화, 신규 주민등록제도 개선, 보건위생 강화, 상하수도 설치 확대, 주요 3대 강(River) 환경보전, 2001년 지진피해복구 등

(3) 온두라스

경제정책 개혁, 중소기업 육성 지원, 비상식량 지원, 식수 및 보건환경 개선, 미취학 아동, 청소년, 성인 기초교육 환경 조성, 허리케인 MITCH 피해복구지원 (약 3억불 지원)

(4) 니카라과

민주주의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외에 경제진흥, 보건향상, 교육강화 순으로 지원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제반 행정법 정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국민 정치참여 장려, 일자리 창출, 모자보건 개선, 허리케인 MITCH 피해복구 지원 (1억불)

(5) 파나마

파나마운하의 보전 및 운영 지원을 집중지원

(6) 중앙아메리카 지역협력

USAID의 대 중미-멕시코 지역협력은 주로 무역자유화, 환경보존, AIDS 예방, 자연재해 예방, 빈곤 감소에 주력

(7) 국가별 지원규모 (2002년도 예)

(단위 : 백만불)

계	과테말라	엘살바돌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지역협력
285.8	\$ 53.5	\$121.5	\$33.1	\$22.4	\$33.9	\$ 8.5	\$12.9

2. 대 과테말라 원조전략 및 동향

가. 미국의 원조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미국이 과테말라 원조를 수행함에 있어 추구하는 주요 외교통상적 목적은 아래와 같음

- 미-중미자유무역협정 (CAFTA) 등 미국과 과테말라와의 동맹관계 강화

- 과테말라 총 수입의 40% 및 총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통상관계를 고려, 주요 무역 Partner로서의 협력관계 강화 필요
- 미국거주 과테말라인의 외국환 송금은 미국 내 주요 자금유통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며,
- 과테말라는 미국으로 유통하는 마약의 중간 거점지이자 미국 불법이민 중간 거점국가로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필요

나. 주요 협력목표

USAID의 과테말라 지원 목표는 광의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모색한다는 취지이나, 협의의 개발원조 목표는 3가지 임

- ① 좀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 육성
- ② 경제구조 다변화 및 경제역량 강화
- ③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 개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분야는 다음과 같음

- 국민 참여형 민주주의 발전
- 교육기회 확대
- 농촌지역의 모자보건 향상
-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식량안보 모색
- 자연환경 보존 및 바람직한 활용방안 강구
- 평화협정 실행 지원
- 허리케인 Mitch 피해의 조속한 복구 및 자연재해 예방 강화

다. 지원형태 (Modality)

- 자금지원
- 기술협력
- 잉여농산물 유상지원 (PL-480 I)
- 잉여농산물 무상지원 (PL-480 II)
- 식량원조
- 인도적 지원
- 연수 (유능한 인재의 미국유학)
- 국제기구를 통한 무상협력 (개발, 기술협력)
- NGO를 통한 무상협력 (개발, 기술협력)

라. 지원전략(2004-2008)

※ 동 지원전략은 2003년 12.17일 과테말라 사무소가 제출한 Country Plan을 USAID 본부가 승인함

(1)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 수립을 위한 USAID 지원전략

· 현 실태

- 국가운영에 필요한 법적 제도 및 장치가 미흡한 과테말라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안 및 시행령 마련이 시급
- 범죄, 토지소유권 분쟁, 인종차별, 인권보장에 대한 법률적 장치 및 이를 운영하는 체계가 매우 미흡 (과거 내전당시와 차이가 없음)
- 현 민주정권도 치안안정, 법치주의 실현, 합리적인 사법처리, 사회보장, 경제성장에 대하여 비효율적으로 대처
- 이러한 비효율적인 정부운영은 정치권의 근시안적행태와 작은 이익의 집착 등 능력부족에 문제가 있으며,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방해하는 또다른 부정적 요인으로는 세금징수를 적절히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재정 부족을 들 수 있음(국민의 약 10%만이 납세하며, 정치권이 부패하여 일반국민들도 납세의무를 회피)

· USAID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내용

◆ 사법권 강화

- 사법권, 정부당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범죄방지에 대한 기획력, 업무수행능력 강화 지원 (기술협력)
- 전문가 파견, 포럼, 콘퍼런스 등을 통한 정책대화 실시
- 관련인사 초청연수
-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마련 지원
- 인권 Ombudsman 기능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 육성

- 정부권력 분권화 및 지방정부 육성 지원
- 대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기관능력강화 지원(기술협력 및 정책대화)
- 재정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정운영시스템 전산화 지원(SIAF-Muni)
- 반부패 및 투명한 정부만들기 운동본부(국가위원회)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법무부에 반부패 감시조직 활성화 지원

- 시민단체 육성(정부감시)

(2) 개방적인 경제체제 구축

· 현 실태

- 과테말라는 천연자원, 문화자원 (마야), 기업환경 등은 상당히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 및 재정 부족으로 이를 경제성장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과테말라의 경제성장률은 약 2% 수준으로 인구증가율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빈곤현상 초래
- 수출 및 수입은 GDP의 18%, 27%로 무역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는 효과적인 경제정책 수립 및 이행이 필요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는 민간기업이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이고, 이들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가재정운영에 한계가 있다는데 있음
- 무토지 영농인들의 잇단 사유지 점령사태는 농업발전 및 전반적인 산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는 이러한 민간기업 및 영농현장에 대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USAID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내용

◆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촌지역에 대한 사유지 점령사태 방지 지원
- 원활한 무역을 위해 세관 및 항만시스템 구축 지원
- 무역관세 환급에 대한 효율적 운영 지원 (부가세 포함)

◆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시장의 수요에 맞는 고부가 상품생산 기술지원
- 자연자원을 활용, 다양한 품종개발 지원
- 기업간 연계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 PL480을 통한 잉여농산물 제공으로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생능력 강화

◆ 금융 및 서비스 산업 육성

- 금융기관 지원을 통한 자금운용 능력 강화 및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
- 과테말라 미국교포들이 송금하는 달러를 산업육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함
- DCA(development credit authority)를 활용해 중소기업 육성 지원

(3) 보건 및 교육환경 개선

· 현 실태

- 과테말라의 보건환경은 중미국가 중 가장 낙후되어 있으며, 5세 미만의 아동위생은 개선 속도가 매우 저조하고 특히 지방은 더욱 심각한 상태임
- 유아 사망율은 39/1000명이며, 이는 중미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 볼리비아, 아이티에 이어 3위로 높음(모자 사망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나, 무계획적인 출산도 심각)
- 43%의 여성만이 피임을 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중 2위) 보건위생 관념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낡음
- 과테말라 정부는 GDP의 2.5%를 교육예산으로, 보건예산으로는 1%만 책정(중미국가 중 최하위)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상적인 국가 보건교육 정책이 보장되지 못함

· USAID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내용

◆ 사회보건 시설지원 강화

- 보건부 · 교육부 · 재무부 기관능력 강화지원
- 보건부 · 교육부 활동내용 평가 및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 보건 · 교육 예산지원을 이한 국회와의 정책대화 실시
- 보건 및 교육시설 확충 지원
-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병합을 통한 교육재원 확보 및 기초교육 강화지원

◆ 아동 및 임신보건 환경 개선

- 임신 및 유아 보건환경 개선
- 가족계획 확산
- 공중보건 시설 확충
- USAID 자금지원으로 보건부에서 NGO를 통해 기초보건환경 강화

[자료 : 주중미 사무소]